광주지하철, 20년간 지구 752바퀴 거리 달렸다

광주도시철도 개통 20주년

2004년 이후 3014만㎞ 운행
하루 8만4789명 탑승 '최고'
가장 많은 탑승일은 '금요일'

광주지하철이 개통 20년동안 달린 거리는 지구 752바퀴인 3014만㎞였다.

오는 28일 개통 20주년을 맞는 광주교통공사가 24일 광주 지하철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광주도시철도는 지난 2004년 4월28일 동구 녹동역에서 서구 상무역까지, 2008년 4월11일 광산구 평동까지를 완전 개통하면서 현재 총 20개역 20.5㎞를 운행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광주도시철도의 총 운행거리는 약 3014만㎞다. 이는 지구를 752바퀴 돈 거리와 같다.

그 동안 공사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유일하게 행안부 경영평가 10년 연속 우수기관, 국토부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우수기관, 철도안전 최우수운영자 지정 등을 이뤄내며 경영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려왔다. 특히 지난해 9월,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광주교통공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지난 20년동안 광주도시철도를 이용한 누적 이용객은 3억2600만여명으로 이는 광주시민 1명 당 약 230회 가량 도시철도를 이용한 것과 같다. 일 평균 이용객수는 개통 초기 3만명이었다가 점차 증가해 2019년 5만3000여명까지 올랐으나 코로나 이후 대폭 감소해 현재 약 4만6800명선이다.

기본운임(현금기준)은 지난 2004년 700원으로 시작한 이래 2005년부터 3년간 매해 100원씩 올랐다가 2011년 1200원을 거쳐 지난 2016년 1400원으로 인상된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운수수입은 일평균 1500만원에서 3300만원까지 증가했다. 무임수송인원은 7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탑승객이 가장 많은 역은 광주송정역으로 일평균 4746명이 이용하며, 수송인원이 가장 많은 요일은 금요일이다. 지하철 승객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아침 8~9시로 전체 이용인원의 9.4%를 차지했으며, 퇴근시간대인 18~19시에는 8.6%로 전체의 18%에 이르는 인원이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하고 있다.

20년간 가장 많은 승객이 탑승했던 날은 광주지역에 3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던 2022년 12월23일로 이날 하루 탑승객은 8만4789명이었다. 두 번째로 많았던 날은 2010년 12월31일로 총 7만4121명이 이용했다. 이 날은 송년타종식이 있었다.

이밖에도 광주교통공사는 개통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대시민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26일 상무역에서 노사 대표가 도시철도 이용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와 기념품을 증정하는 '노사 공동 대중교통 활성화 캠페인'을 갖는 동시에 더샵센트럴어린이집 원아 50명을 초청, 관제실 견학과 버블아티스트 '에반'의 매직버블쇼 등 흥미진진한 문화콘서트를 선보인다.

이어 본사 앞 광장에서 국악그룹 '꽃가람'과 성악그룹 '리썸플로르'가 아름다운 공연을 펼치며 개통 20주년의 의미를 시민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조익문 사장과 이창원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가 함께 타임캡슐 봉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상무역에서는 아름다운가게,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5점 이상의 물품을 기증한 시민들에게 화사한 봄꽃 미니화분을 제공하는 자원순환 이벤트, 공사 캐릭터인 '씽아와 친구들' 캐릭터 탈인형과 함께 사진을 찍는 포토이벤트가 펼쳐지고 개통20주년 축하 및 응원 게시판도 설치된다.

풍성한 전시도 준비된다. 문화전당역에서는 '사진으로 보는 광주도시철도 20년'이, 상무역에서는 청년작가 그룹 초청 '2024 일상 그리다' 특별전과 영유아들의 미래교통수단 그리기 작품 전시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역에서는 청년장애인 웹툰&일러스트 수상작 전시가 각각 다음달까지 펼쳐진다.

이와 함께 공사 블로그에 개통20주년을 축하하는 응원메시지를 20자로 작성해 올리면 100명을 추첨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다음달 7일까지 진행한다.

광주도시철도 개통 20주년을 맞아 조익문 사장은 "20년간 보내주신 시민들의 성원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발이 돼 시민 행복을 위해 쉬지않고 달리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

전남도는 도민 모두가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개인의 체력 상태를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평가해 운동 상담과 처방을 해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체력인증기관이다.

도내에는 △목포국제축구센터 △순천문화건강센터 수영장 △동신대학교 운동처방센터 △곡성군 반다비체육센터 △세한대학교 복지회관 △목포대학교 다목적강당 △신안군민체육관 등 7개의 체력인증센터가 운영 중이다.

11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체력100 누리집(www.nfa.kspo.or.kr) 회원가입을 한 뒤 방문 예약하면 된다.

체력인증센터에서는 신분증 지참 후 운동복 차림으로 방문하면 체력측정을 받을 수 있다. 19~64세 성인 기준으로 △근력(상대 악력) △근지구력(교차 윗몸 일으키기) △심폐지구력(왕복 오래달리기, 트레드밀, 스텝 중 택 1) △유연성(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민첩성(왕복 달리기)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을 각각 측정한다. 체력측정 시간은 30분가량 소요된다.

체력 측정 결과에 따라 국가공인 인증서 또는 참가증을 발급받고 운동처방사로부터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스트레칭, 필라테스 등 다양한 체력증진교실도 전 과정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간 1만9000여명이 도내에서 체력 측정을 받았다.

체력인증센터의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면 적립 기준에 따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를 적립할 수 있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는 연간 최대 5만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다. 체력 측정은 1회당 3000포인트(연 2회 지급), 체력증진교실 참여는 1회당 1000포인트(연 40회 지급)가 적립된다. 적립된 인센티브는 제로페이 앱인 '지맵'에서 스포츠상품권으로 교환해 전국 체육시설, 체육용품 판매점, 약국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체력인증센터에서 제공하는 체력측정, 체력증진교실 신청이나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적립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력100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지혜 기자

광주시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무창 시의회 의장, 류재선 광주시새마을회 회장과 회원,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지난 23일 광산구 쌍암공원에서 열린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 새마을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전남도, 재해위험지역 발굴… 안전사각 최소화

급경사지 1000개소 실태조사

전남도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미등록 급경사지 조사 및 관리에 나선다.

24일 전남도는 촘촘한 급경사지 관리를 위해 도민 생활권에 밀집한 미등록된 위험 의심 지역 100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를 통해 급경사지의 경사도·높이 등 규모, 비탈면 유형, 위험요인 등을 조사하고,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관리 대상에 포함, 공간정보 등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또 위험도에 따라 사면 완화 등 연차별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 시 활용을 위한 도면 등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해당 시·군에 배포해 지정·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도 급경사지 관리 기준이 현행 5m에서 3m 이상으로 강화되는 만큼, 소규모 비탈면에 대해서도 급경사지 관리 대상으로 확대해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급경사지 관리 대상은 1968개소로, 이 가운데 415개소는 붕괴위험지역으로 별도 지정해 정비하고 있다.

송광민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발굴해 안전관리를 강화,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전남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

전남도가 코로나19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해 접종률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점을 인정받아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24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2024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전문가 포럼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과 함께 광역지자체 부분 우수사례 발표를 했다.

2023~2024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3년 10월19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추진해, 65세 이상 코로나19 접종률 49.2%(전국 41.2%), 감염취약시설 62.9%(전국 5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접종률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예방접종 분위기를 높이고 도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지사 등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을 실시하는 등 접종 홍보에 앞장섰다.

또한 예방접종 의료기관을 651개소로 확대·운영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했다. 의사회, 요양기관, 요양병원협회, 노인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접종 현황을 관리하며, 미접종자 보호자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독려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고위험군의 면역 지속 시간은 짧다. 5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65세 이상 어르신은 마지막 접종 3개월 후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 예방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광주시, 육아 품앗이 '삼삼오오 이웃돌봄' 선정

광주시가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이웃집 긴급 육아 품앗이 '삼삼오오 이웃돌봄'에 참여할 자조모임 19개팀을 최근 선정, 모임별로 최대 12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류와 대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자조모임은 상대적으로 돌봄 기반시설이 다소 미흡한 도시농촌산단, 한부모·장애인, 다문화·취약계층, 맞벌이 자조모임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구성원과 함께 △저녁돌봄 △주말돌봄 △긴급돌봄 △일상돌봄 등을 주체적으로 실천하며, 자조모임별로 최대 120만원까지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광주시는 선정된 자조모임의 지속성을 높이고 참여자의 돌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해 양육자 상담(컨설팅), 돌봄공동체 후원(멘토링), 아빠 육아골든벨·힐링캠프 등 아빠 참여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첫 추진하는 '삼삼오오 이웃돌봄'은 근접한 생활권 내에서 거주하며 믿을 수 있는 이웃끼리 필요할 때 서로 맞돌봄을 통해 기존 시설돌봄으로 해결되지 않는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김선자 여성가족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은 육아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웃이 함께 모여 육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웃이 함께 일상돌봄을 나누고 주도하는 촘촘한 광주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